

익산, 예방접종 계획 확정

이달부터 의료기관 종사자 우선순위... 11월까지 모든시민 접종

익산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익산시는 의료기관과 집단생활시설 종사자 등을 우선 접종하고, 11월까지 예방접종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정부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방침에 따라 오택림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임시예방접종추진단을 구성했다.

추진단은 이달부터 접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역 접종 대상은 전체 인구 28만 2000여명 중 18세 이상 시민 24만여명이다.

빠르면 이달부터 1분기에 의료기관 종사자, 집단생활시설 생활자와 종사자 등 9100여명을 우선 접종할 예정이다.

이후 2분기에 65세 이상, 보육시설 종사자, 50~64세 시민 등 14만명의 접종을 마칠 계획이다.

나머지 시민은 11월까지 접종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이달 중 익산실내체육관에 접종센터를 설치하고 지역 병·의원을 위탁의료기관으로 선정한다.

백신은 종류별 특성에 따라 민간 위탁의료기관이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백신을 접종한다. 초저온 냉동고가 필요한 모더나, 화이자 백신은 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할 예정이다.

의료기관 종사자나 접근기관 인력 등은 각 해당 기관, 요양원과 노인의료복지시설 등 집단시설은 자체접종 또는 보건소 방문접종을 병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접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센터 설치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필요한 장비와 인력이 차질 없이 확보되도록 예산부서를 비롯한 전 부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강소연구개발특구, 경제성장 중심에 선다

군산시, 선순환 산업생태계 전환... 맞춤형 기술사업화 추진

군산시는 지난해 7월 R&D 허브를 담당할 강소연구개발특구(이하, 강소특구)를 지정받는 성과를 거두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특구 육성사업을 통해 선순환 산업생태계 대전환을 위한 도약을 시작한다.

군산 강소특구는 올해부터 매년 국비 60억원을 지원받아 특화분야인 친환경 전기차 부품소재의 연구개발과 기술이전 사업화를 추진하여 기업 성장과 창업, 연구소기업을 육성하는 등 군산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시와 기술핵심기관인 군산대학교는 지난해 9월부터 올 3월까지 사업화 기술개발사업(국비 1.2억원)을 통해 지역 내 보유기술과 특허를 분석하고 유망 공공기술 DB 구축, 연구소·첨단

기술기업 후보 발굴, 수요와 공급 매칭 기술이전을 사전 조사하는 등 군산 강소특구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올해 추진될 강소특구 육성사업은 4개 분야 8개 과제로 ▲기술발굴 연계(양방향 기술발굴 연계, 연구소기업까지 단계별 맞춤형 지원전략을 수립하고 기술사업화 자금, 세제혜택, 규제특례 등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통해 더 많은 기업이 입주하여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군산 강소특구는 향후 5년간 맞춤형 기술사업화 등의 특구 육성사업으로 기술이전 100건, 기술창업 50개, 연구소기업 55개와 609명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한경봉 기자

군산 농어촌마을에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제공

군산시는 코로나19로 디지털 환경이 일상화됨에 따라 정보와 이용격차 해소를 위해 디지털 접근성이 취약한 농어촌 마을에 초고속 통신망 고도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농어촌통신망 고도화 사업'은 정부의 디지털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인터넷 수요가 적어 초고속망 설치가 곤란한 지역에 국비를 지원받아 초고속인터넷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통신사와 협약해 마을 중심부까지 광케

이블과 통신주, 광단자함 등 통신 설비를 구축함으로써 농어촌 주민의 디지털 이용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시는 7개 마을(도서지역 1개, 농촌마을 6개)에 100Mbps급 초고속인터넷망 구축을 완료했으며 올해도 9개 마을에 구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상대적으로 디지털 문화에 소외됐던 소규모 농어촌에서도 초고속 인터넷을 통한 고화질

IPTV 시청은 물론 학생들이 저명강사 인터넷 강의를 들을 수 있게 됐다.

서경찬 자치행정국장은 "최근 온라인 수업, 재택근무, 각종 행사 및 회의 등이 온라인 화상회의로 바뀌고 있다"며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시대로의 전환에 맞춰, 농촌 마을의 디지털 접근성 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초고속인터넷망 보급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고병만 기자



원광대학교병원이 지난 2일 병동2관 1층에 자리한 역사갤러리 개관 축하 컷팅식을 가졌다.

원광대병원, '역사갤러리' 개관

개원 40주년 기념

원광대학교병원(병원장 윤권하)이 지난 2일 병동2관 1층에 자리한 역사갤러리 개관 축하 컷팅식을 가졌다.

원광대병원은 이날 개관식을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국가적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차원에서 원광학원 내 소수 인사만 참석한 가운데 간소하게 행사를 마쳤다.

이에 허중규 원광학원 이사장, 김부겸 상임이사, 박맹수 원광대학교 총장, 윤권하 병원장 등 주요 내빈만 참석해 설명기도, 인사말씀, 테이프 컷팅식 순서로 간략하게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서 허중규 원광학원 이사장은 "역사갤러리를 관람하면서 그 어디에도 뒤지지 않을 깊이 있는 내용 구성에 수고를 아끼지 않은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병원 태동 40여년 역사의 긍지, 지혜, 의지에 우리

의 힘을 다하여 제2의 도약을 해 나가자"고 축하의 뜻을 밝혔다. 박맹수 원광대총장은 "병원 설립의 의지와 뜻을 뒤돌아보니 가슴이 뭉클하다.

개관한 역사박물관에 원광대병원의 뿌리의 역사가 담겼다. 이 원전을 계기로 세계적 글로벌 병원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며 원광대병원 역사갤러리 개관을 축하했다.

역사갤러리에는 원광대병원이 걸어온 과거 신뢰의 40년 역사와 미래 글로벌 리더로써 병원이 나아가야 할 내용이 전시됐다.

역사갤러리는 환자, 내원객 및 교직원들이 이동하면서도 관람이 편리할 수 있도록 벽면을 5개의 테마로 나누어 병원의 탄생 과정부터 발전된 현재의 현황들과 향후 지향해 나아갈 미래 지향적인 모습을 이미지 및 작품으로 제작해 전시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원광대, 2021학년도 등록금 동결

2009년부터 13년째 지속

원광대학교(총장 박맹수)가 2021학년도 등록금 동결을 최종 결정했다.

2021학년도 등록금 책정을 위해 등록금심의위원회(학교 4명/학생 3명/외부인사 2명)를 연 원광대는 학부보 및 재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정부 정책 부응을 통한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올해도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원광대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등록금 동결에 이어 2012년 6.3%, 2013년 0.6%, 2014년에는 0.5%를 인하하고, 2015년부터 올해까지 연속해서 동결을 확정해 13년째 등록금을 인하 또는 동결하고 있다.

특히 2017년에 입학금의 단계적 감축을 결정한 원광대는 2018학년도 입학금 20% 인하를 시작으로 10년에 걸쳐

입학 최소비용까지 감축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는 2020학년도 대비 49.8% 인하된 11만5,000원으로 입학금을 책정했으나, 신입생 전원에게 입학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원광대는 지난해 7월 코로나19 확산으로 학생들이 겪은 학습상 어려움을 고려해 재학생 1인당 20만원의 특별장학금을 지급한데 이어 9월에는 1억 원의 코로나19 생활지원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어려운 재정에도 고통분담을 통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힘써왔으며, 10년 이상 등록금 동결에 따른 재정 악화 극복을 위해 발전기금 확충 등 다양한 자구노력을 모색해 재정 악화에 따른 대학경쟁력 저하를 방지하고, 대학 교육유기인 연구, 교육, 사회봉사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은 지속적으로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

/익산=장양원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전북대병원부지 100% 토지보상 완료

군산전북대병원 부지에 대한 토지보상이 100% 완료되며 준공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다.

군산시는 오는 2025년 준공 및 개원을 목표로 추진 중인 군산전북대병원은 103,497㎡ 33필지 토지를 100% 보상 완료했다고 3일 밝혔다.

부지매입 완료와 더불어 시는 전북대병원과 합을 합해 오는 9월 중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10월 중 도시계획인가를 거쳐, 12월 중 시공사업자 선정 및 공사를 진행해 2025년 개원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군산전북대병원 건립 사업은 사업용 일원에 500병상이상 상급종합병원을 건립해 중증환자 및 응급환자 등 열악한 의료환경 개선하고 통합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백중현 보건소장은 "전북대병원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시민의 요구도를 반영하고 신속한 행정절차 추진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군산=남흥봉 기자

익산 20대 3명 추가 확진

익산지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3명이 추가 발생했다.

3일 익산시에 따르면 타 지역 확진자를 접촉한 20대 3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추가 확진자는 전북 1052번(익산 195번)부터 전북 1054번(익산 197번)으로 분류됐다.

추가 확진자 모두 김해 237번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됐다.

확진자들은 지난 2일 김해 확진자의 접촉자로 통보받아 검체 검사 후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지난날 27일 확진자가 다녀간 전주 한 식당을 방문해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당국은 핸드폰 GPS·카드 사용내역과 방문지 CCTV 확인을 실시했으며 추가 동선 확인 시 방역소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익산=장양원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본인이 뚱뚱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